강청기도 하는 법

(눅11:2-13)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6.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강청기도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밤중에 친구를 맞이하게 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으므로 이웃집에 가서 모든 식구가 다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빤히 알면서도 무례를 무릅쓰고 친구가 먹을 떡을 구하게 되는 사람의 비유를 듦으로써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강청하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도 좀 변형된 형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청의 기도를 권면하시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청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청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주지는 않지만 강청하고 있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격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폭 넓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내 학벌 내 나이 내 능력 남녀노소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강청만 하면 된다, 강청함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강하게 요청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축구를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축구시합을 할 때 그냥 강청하면 내 자격 내 능력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 나는 돈 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강청하면, 그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자격도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강청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강청하면 강청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들어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간청해야 되는가? 간청과 강청. 이 개역한글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이 개정성경에는 간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청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의미가 있으니까 강청이라고 합시다.
그 강청! 뭘 강청해야 되는가? 강청만 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임의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뒤져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내용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니까, 생선과 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문을 다 뒤져보면 누가의 특별한 의도 속에서 언제나 말씀 드리지만, 누가의 의도라는 것은 누가라는 인격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의 의도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의도지요.
누가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님의 의도, 그걸 우리가 누가의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가의 의도 속에서 보면 마태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강청의 기도 비유를 갖다 붙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말씀도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산상수훈에서 떨어져 있었던 주기도문과 떨어져 있던 부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비유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강청의 태도 강청함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내용에 관한 언급은 아무리 달리 찾아보려고 해도 주기도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만이 기도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중에서.
근데 2000년 이 누가복음이 교회에 주어진 이래 2000년 동안, 도대체 누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청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제 자신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흥회를 참석도 해 보고 부흥회를 인도도 해 봤지마는, 제가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또 사회자나 뭐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부흥회를 참석할 때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제 자신이 한 적도 없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다~ 건강, 사업, 돈 뭐 자녀문제 또 풀리지 않는 가족문제 아니면 교회발전, 교회부흥 아니면 뭐 성령을 주셔서 지금 방언을 하게 해 주시라든지 무슨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든지 하는데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는 교회 있습니까? 본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참 절묘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이 누가의 의도가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내용 자체가 강청함이 없으면, 강청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기도더라 이겁니다, 아예 주기도 자체가.
우리는 강청의 기도를 드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청의 기도를 드리다가, '아~~ 하나님~~ 주세요!!' 하고 그러다가 주기도로 기도회를 마칠 때, 주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톤이 팍~ 낮아져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톤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잠잠~ 해 집니다.
그 시간에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내용으로 들여다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강청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기도가 주기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비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간단합니다, 더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도 빠져 있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가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듯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가 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되어있는 이 내용이지만, 누가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강청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서는, 강하게 다부지게 달라붙는 마음이 없어서는 드려질 수가 없는 기도더라 이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한 마디를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강청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기도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갖고 난리가 한 번 났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크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 한 사람의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판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어디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때에, 내 마음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라야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내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도 선전되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

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3개의 태풍이 불 때, 뉴스를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산이 뽀족해 집니다, 둥그런 우산이 뽀족해져요.
조금만 방향을 틀면 확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는 거를 보고, 리포터들이 흔들흔들 거려요. 겨우겨우 몸을 가누어요, 있는 힘을 다 주고 몸을 가누고 있습니다.
돈 문제, 태풍처럼 초속 50미터의 강풍으로 내 마음의 관심을 쓸어가려고 합니다.
자식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우리나라 문제, 뭐 물가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관심을 태풍 초속50미터의 강풍으로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내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로서 하나님을 부르려면, 초속 50미터로 부는 강풍에 맞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걸어가야 한 두 걸음 걸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보통 강청의 마음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무시는 이유는, 지구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광풍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앞서서 더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현실로 마음에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은 광풍이 지금 몰아칩니다.
이때 주기도문을 기도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광풍이 내 마음의 관심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 광풍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돈 문제의 광풍이 불고 있고, 자식문제의 광풍, 건강문제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내 마음의 관심이 이것들 앞에서 버텨내면서, 이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 되도록 하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도대체 내 마음이 얼마나 다부지게 달라붙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더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강청의 기도가 아니면 기도 자체가 드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내 뜻은, 내 소원과 내 바람은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순풍에 돛 단 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사업의 주체인 나의 입장을 거절해야, 하나님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내 사업이 진행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가 그냥 파라다이스가 임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능력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사업과 내 자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은, 그 가정과 사업과 계획과 나라에 대해서 소원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내 소원이 나를 끌어갑니까?
그러나 이것과 맞서서 이쪽으로 돌려서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나를 억제해야 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질과 연관해서는, 내가 하루 세끼 밥 먹고 나면 그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어들일 물질이든 이미 있는 물질이든 간에 다 그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일용할 세끼 밥 먹은 것 외에는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처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죄 사함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원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 사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주기도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관계할 때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권자 되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사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사울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사울을 통해 쫓게 만드시는 다윗의 삶에 역사의 구간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갈 때에,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아래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이겨내야 되고…
알지요 여러분? 이 분한 마음을 삭혀야 되고…

그러니까, 주기도의 내용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청의 기도란, 우리가 태풍이 불 때에 정말 나뭇가지라도 붙잡고 있어야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를 강하게 고백해야, 내 마음의 관

심을 딴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바람과 내 기준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할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청하는 기도 방법!
주기도문을 십자가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구페인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지구의 그 어떤 현실보다도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현실로 내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또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소원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 축복입니다.
강청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주기도문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기도를 강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주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므로, 정말로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